



# 세계 50대 석유회사들

에너지경제연구원

수퍼메이저 석유회사들의 기업순위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신흥시장의 국영석유회사로 구성된 신흥 메이저들의 약진이 돋보임.

OECD 석유회사의 50대기업 점유율 하락추세임. 특히 미국기업의 점유율이 최근 합병과 계열화 추세의 영향으로 과거의 절반인 8개 석유회사에 그침.

신흥메이저 기업들은 기존의 메이저보다 영업활동에서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음.

신흥메이저들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유산업의 지배구조에서 큰 변화 없음. 국영석유사는 매장량과 생산부문을 장악하고 있는 반면 메이저기업은 정제 및 마케팅부문을 장악하고 있음.

## 1. 수퍼메이저 등장과 개도국 국영석유 회사 약진

PIW(Petroleum Intelligence weekly)지는 최근 세계 약 120개 석유회사들의 기업운영 데이터를 분석하여 세계 50대 석유회사를 선정 발표하였다. 세계 50대 석유회사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재정적 측면 이외에 원유 및 천연가스 보유 매장량, 생산 및 정제 능력, 수익성, 고용능력 등 다양한 요인들을 비교 평가한 결과이다.

석유기업 평가 결과, 세계석유산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최근 몇 년간 메이저 석유회사들의 합병으로 새롭게 탄생된 슈퍼 메이저회사의 기업순위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러시아, 중국, 브라질과 같은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개도국 국영 석유회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신흥시장의 국영석유회사들은 특히 자국내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적 규모의 석유회사

로 성장하려는 야망을 함께 키워가고 있다. 따라서 수퍼 메이저 회사와 같은 거대 석유기업과 전략적 업무 제휴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사의 경쟁력을 무섭게 키워가고 있다. 과거에는 국영석유회사들이 기업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서서히 순위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대규모 합병으로 태어난 새로운 석유회사들은 기존 미국과 유럽 석유기업들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상위그룹에 도전하여 세계석유회사 상위 50위 권으로 진입해 들어오고 있다.

## 2. OECD 석유회사 점유율 하락

상위 50대 기업에 오른 세계적인 석유회사들을 국가별로 구분하면 총 33개국이다. 2001년 세계 50대 석유회사 순위에서 나타난 큰 특징 중 하나는 미국기업의 점유율 하락이다. 미국 석유산업은 최근 합병과 함께 심화되는 제철화의 영향으로 50대 기업에 오른 회사는 8개에 불과하다. 반면, 러시아는 9개 석유회사가 50대 기업으로 기록되면서 수적으로 미국을 압도하였다. 1980년대 말에는 상위 50대 석유회사에 미국계 회사가 총 14개나 올라 있었다. 올해 Chevron-Texaco와 Phillips-Conoco의 기업합병이 완료되면 미국기업은 수적으로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미국에 이어 서유럽 국가들도 기업흡수 등의 영향으로 50대 기업에 각각 2개씩의 석유회사들이 올라있다. 2001년에는 특히 일본계 거대 합병기업 Nippon-Mitsubishi사와 미국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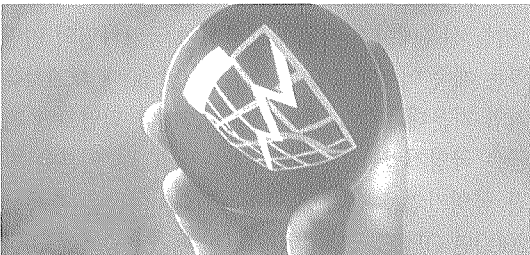
Anadarko사가 각각 48위와 46위를 기록하면서 50대 석유회사로 상승하였다. 2002년에는 합병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기업순위 변동이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 표 〉 2001년 세계 15위 석유회사

기업 순위	회사명	정부지분(%)	매장량순위		생산량 순위	
			석유	가스	석유	가스
1	S. Aramco	100	1	4	1	9
2	PDV	100	5	7	4	10
3	Exxon-Mobil	-	12	15	6	2
4	NIOC	100	4	1	2	6
5	R/D Shell	-	15	14	7	4
6	Pemex	100	7	19	3	7
7	BP	-	18	18	9	5
8	Total-Fina-Elf	-	23	21	12	11
9	PetroChina	90	14	20	8	26
10	Pertamina	100	29	11	20	8
11	Sonatrach	100	16	6	15	3
12	Petrobras	32.5	17	32	16	23
13	KPC	100	3	16	10	34
14	Chevron	-	26	30	18	16
15	ENI	36	31	26	24	15

자료 : PIW Ranks The World's Top Oil Companies, 2001, 12, 17

기업순위 10위권까지 살펴보면, 메이저 회사와 거대 국영기업간에 약간의 순위 조정이 있었지만 2000년에 비하면 큰 변동은 눈에 띄지 않는다. 가장 큰 변화는 중국석유(PetroChina)가 9위로 처음 정상급 그룹으로 진입된 반면 쿠웨이트 석유사(KPC; Kuwait Petroleum)가 2000년 10위자리에서 13위로 밀려났다. 사우디 아람코사(S. Aramco)는 변함없이 선두자리를 유지했지만 최근 몇 년간 성장성은 낮았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2위 자리는 베네수엘라 PDV에서 차지하였고 Exxon-Mobil은 3위로 밀려났다. BP와 멕시코 Pemex사는 각각 7위와 6위로





자리바꿈을 하였다. 프랑스 Total-Fina-Elf사는 2000년 9위에서 8위로 올라섰다. Chevron과 Texaco는 2001년 각각 14위와 17위로 랭크되었으나 올해 합병이 완료되면 1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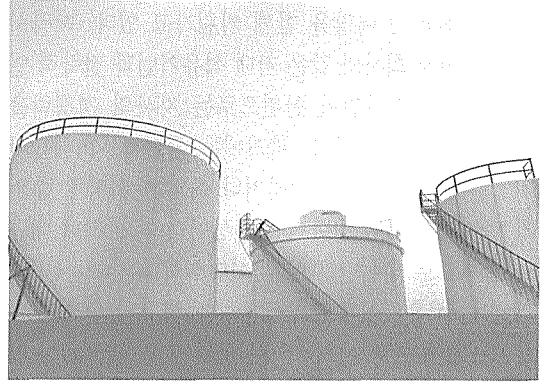
### 3. 개도권 10개회사, 신흥 메이저 그룹 형성

신흥시장으로 분류되는 개도국과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국에서 석유산업의 상하류부문 통합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약 10개의 석유회사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메이저그룹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흥메이저로 불리는 기업으로는 PetroChina(9위), Petrobras(12위), Surgutneftegaz(24위), Lukoil(27위), Yukos(30위), Sinopec(33위), Tyumen Oil(35위), Slavneft(38위), Sidanco(41위), Sibneft(42위) 등이다. 중국(2개), 브라질(1개), 러시아(7개)로 러시아계 석유회사들이 수적으로 압도적이다. 신흥메이저 가운데 7개 회사는 2001년 기업순위 평가에서 순위가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개도국 신흥메이저 활동 현황

회사명	순위	석유(백만 bbl, 천 b/d)			
		매장량	생산량	정제능력	판매량
PetroChina	9	11,032	2,091	1,917	1,126
Petrobras	12	8,356	1,324	1,935	2,215
Surgutneftgaz	24	6,992	813	548	365
Lukoil	27	14,280	1,557	532	871
Yukos	30	11,769	986	1,107	509
Sinopec	33	2,952	676	2,599	1,344
Tyumen Oil	35	7,459	572	360	265
Slavneft	38	2,816	245	290	249
Sidanco	41	7,257	259	142	80
Sibneft	42	4,644	344	390	216

자료 : PIW Ranks The World's Top Oil Companies, 2001, 12, 17



이들 신흥메이저 그룹은 세계 석유산업에서 새로운 힘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국영석유회사로써 해당 국가의 천연자원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민간교역회사라는 점, 그리고 정부가 그들을 역동적이고 잠재적인 세계기업으로 키워가고 있다는 점등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들 국영석유기업들은 자국의 석유자원 및 국내시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지만 국제적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야망도 함께 가지고 있다. 신흥 메이저 기업은 또한 영업활동에서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의 균형을 기존의 메이저 보다 잘 유지하고 있다. 기존의 경우, 메이저들은 영업활동에서 정제 및 마케팅 즉 하류부문 비중이 크고, OPEC 등의 국영기업들은 상류부문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01년 세계 50대 석유기업에 오른 신흥메이저 기업은 대부분 영업활동의 확대를 통하여 기업순위 상승을 일구어냈지만 Lukoil, Yukos, Slavneft 등 일부 러시아 기업들은 흡수통합의 결과로 순위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신흥메이저 기업을 포함하여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80년대 말 50대 세계석유기업 가운데 100% 국영기업이 27개나 되었지만 지금은 국영기업이 17개이고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국영기업은 14개로 줄어들었다. 이같은 추세는 2000년 OPEC 국영기업들의 원유생산 증가에도 불

구하고 지속되었다. 한편 러시아 Gazprom은 정부 지분이 38%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정부통제를 받고 있는데 2001년에 34위에 랭크되어 순위가 하락하였다. 이는 서방기업에 지분매각 이후 전문가의 보유 자원 감사 이후 가스 매장량을 하향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 4. 국영석유사는 상류부문, 수퍼메이저는 하류부문 지배

신흥메이저 그룹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유산업의 전체로는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의 지배구조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10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대형 국영석유회사들이 원유와 가스매장량과 생산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들 석유회사들은 대부분 매장량에서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 Gazprom, 멕시코 Pemex, 베네수엘라 PDV를 제외하면 상위 10위에 랭크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업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생산활동에서, 수퍼메이저 기업의 탄생으로 이들 탄생으로 이들 대형기업의 원유와 가스 생산량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랭킹 10위권에는 수퍼메이저 기업 3개사(Exxon-Mobil, R/D Shell, BP)가 올라있는데 특히 석유생산보다 천연가스 생산에서 높은 기업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 표 〉 상하류부문 10대 석유기업

순위	석유·가스매장량		석유제품 판매량	
	회사명	백만 BOE	회사명	천 b/d
1	S. Aramco	297,248	Exxon-Mobil	7,993
2	NIOC	225,083	R/D Shell	5,574
3	INOC	130,800	BP	5,510
4	Gazprom	121,352	PDV	3,234
5	KPC	105,283	Total-Fina-Elf	3,109
6	PDV	102,283	S. Aramco	2,983
7	Adnoc	89,140	Texaco	2,585
8	Qatar Petroleum	78,833	Petrobras	2,215
9	Sonatrach	34,691	Pemex	2,050
10	Pemex	34,104	Nippon-Mitsubishi	1,438

자료 : PIW Ranks The World's Top Oil Companies, 2001. 12. 17

수퍼메이저들은 정제 및 마케팅분야인 하류부문에서 경쟁이 가능한 소수의 국영석유회사와 더불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PDV는 이들 수퍼메이저와 겨루는 최대 국영기업이다. 이외에 사우디 Aramco와 멕시코 Pemex가 수퍼메이저를 하류부문에서 바짝 뒤쫓고 있다. 수퍼메이저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 Exxon-Mobil과 Total-Fina-Elf는 정제와 제품판매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쉘(R/D Shell)과 BP는 정제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의 제품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하류부문 경쟁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메이저 기업은 브라질의 Petrobras와 중국의 PetroChina와 Sinopec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 석유회사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독립계 미국 석유기업 가운데 하류부문에서 기업랭킹이 높은 회사로는 기업인수협상이 진행중인 Tosco사와 Valero사가 있다. 이들 독립계 석유회사들은 상류부문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위 50위안에도 들지 못하는 기업이다. ☹